

불자연예인 자비행 “훈훈한 세밀”

교도소·군부대 위문공연...군법당 개원도 후원 최불암·송춘희·김홍국씨등 온정나누기 ‘분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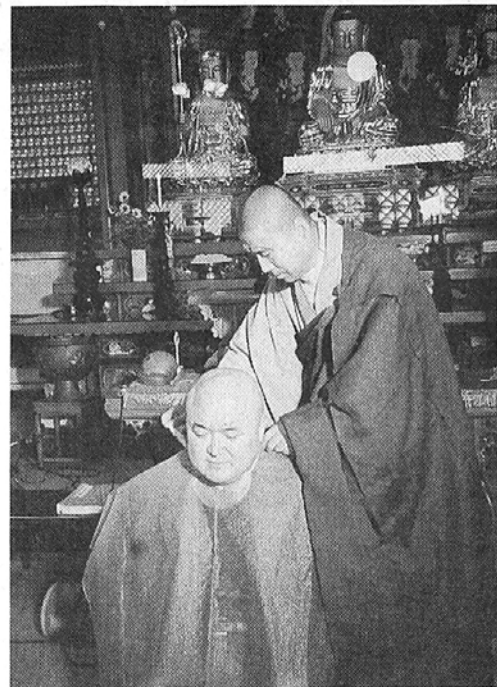
연말을 맞아 불자연예인들의 자비행 열기가 분주하다. 백련장학회(회장 송춘희)는 지난 1일과 3일 영등포교도소와 육군교도소를 찾아 수계식 및 송년법회를 갖고 재소자들을 위로한데 이어 17일 00대대와 24일에는 3군사령부 송년법회 등 군부대를 찾아 위문공연을 펼칠 계획이다. 이미 연예인 자비행(회장 지

연)는 11일 대방동 공군회관에서 지역 장애인들을 초청, 장기자랑과 노래자랑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이유진씨의 진행으로 마상원 악단과 탤런트 최불암 박은숙씨 등과 박정숙 오승아씨 등의 불자가수들이 출연했다. 또 연예인 자비행회는 이날 말 1사단 수색대에 군법당(34평규모)을 개원할 예정이어서 더욱 훈훈한 연말을

예고하고 있다. 불자가수 김홍국씨는 동산반야회(회장 김재일)에서 주관한 ‘트윈다 난민돕기’ 행사에 홍보맨으로 자원봉사한다. 동산반야회는 기금 2만불을 이달중으로 공노명 의무부장관에게 전달하고 홍보포스터도 제작하여 트윈다의 실상을 두루 알릴 계획이다. 또 개그맨 김형곤씨는 지난 1일 삼청동 철보사 대웅전에서 석주스님(조계종 원로의원)을 계사로 오계를 받고 ‘무애’라는

법명으로 참불자의 길을 갈 것을 서원했다. 삭발식 후 김형곤씨는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8일까지 여승의 전당 토월극장에서 공연할 뮤지컬 ‘왕과 나’의 수익금을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불자가수회와 한국연예인불교회, 불자예술인연합도 연말연시를 맞아 다채로운 불우이웃돕기 행사를 준비중에 있다.

김원우 기자



◇ 개그맨 김형곤씨가 지난 2일 삼청동 철보사에서 석주스님에게 ‘무애’라는 법명을 받고 삭발식을 가졌다.

지구촌 불교

한·태등 각국 사찰대표 협회결성

인도 부다가야 소재 각국 사찰 주지스님들이 ‘부다가야 불교도협회’를 결성했다. 지난 6일 태국계 사찰에서 결성식을 가진 이 협회는 부다가야에 위치한 사찰과 수도원간의 우호적인 관계유지와 불교 관련 문제들에 공동대처하기 위한 단체다. 앞으로 매

월 정기모임을 갖게 될 이 협회는 한국 스리랑카 일본 부탄 인도 태국 베트남 티베트의 사찰들이 동참하고 있다. 초대회장은 버마의 비하나라스님이 선출됐다.

부다가야=월우스님

“모든 인간 불성지닌 평등한 존재”

‘불교와 인권’ 인터넷 토론...‘상호의존 선언’ 발표

모든 인간은 불성을 지닌 동등한 존재로 평등하게 존중되어야 한다는 불교인권 선언문이 인터넷의 온라인 토론을 통해 발표했다. ‘상호의존의 선언(Declaration of Interdependence)’이라고 명명된 이번 선언문은 전자잡지 ‘불교실천 윤리誌(Journal of Buddhist Ethics, JBE)’가 주관한 ‘불교와 인권’을 주제로한 온라인 토론에서 채택된 것이다.

가르침에 따라 인간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 불교 인간은 인종 종교성 피부색 정치적 이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인정받아야 한다. 세계 모든 인간은 환경과 다른 생명체들을 해치지 않을 책임을 지는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지난 10월 1일부터 2주간 계속된 인터넷 온라인 토론은 토론기간내 접속건수가 1천3백50건에 전자메일을 통한 참여도 4백여건이 넘는 등 불교와 인권에 관한 연구가 부재한 현실에서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가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선언문에는 첫째 인간은 불교의 비폭력 불살생의

한편 JBE의 온라인 토론에서는 사회적 환경에서의 불교의 역할-태국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인권과 문화적 가치-달리리리아의 정치철학과 중국 민족, 카톨릭사상에 미친 사회참여불교, 대승불교에서 바라본 불교윤리, 왜 불타는 인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등 다양한 내용의 논문들이 발표됐으며 달리리리아의 ‘인권과 우주적 책임’에 관한 1993년도 연설, 인권에 관한 UN선언문도 포함되어 있다.

加 靑린곡엔협 전자잡지 ‘佛門’ 발간

최근 생활속에 불교를 실천하고자 발간된 전자잡지 ‘佛門(Buddhist Door)’이 새로 인터넷에 등장했다. 이로써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전자잡지는 총2개로 불교의 일반적인 개념을 비롯하여 티벳불교 선명상 불교윤리 불교예율 등 각기 다른 주제를 다룬다. 이번에 새로 등장한 ‘佛門’은

캐나다 밴쿠버의 탄린곡엔협회(Tung Lin Kik Yun)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불교의 기본교리, 선사들의 법문, 불교예율, 용어사전등의 코너가 마련됐다. 특히 용어사전(glossary)코너에는 산스크리트 불교용어를 영어로 풀이해 놓았고 일반인이 불교에 대해 흔히 가질 수 있는 의문들을 쉽게 설명하고 있다.

방송가 소식

BBS 지방국 3~5곳 추가요청키로

불교방송의 추가지방국 네트워크 확충이 빠르면 내년 초 가시화 될 전망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최근 여러모임에서 불교방송의 지방국 3~4개 추가인가를 거론하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월주스님은 지난 1일 조계종 총무원 1층에서 열린 불교청주 방송 개국을 위한 선서화전에 참석한 불자국회의원들에게 “불교방송 추가 개국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신경식 국회 문화위원장은 “소관부처인 만큼 불자로서 불방 지방국이 확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월주스님은 지난 4일 ‘내년 4월 총선전에 3~5개의 지방국 설립허가를 받는다는 계획’이라며 “추가인가 지역국은 춘천, 전주, 대전이며 강릉, 마산 제주도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다. 『본지 31호 참조』 국방부 합참 인사심리전참모부는 지난 5일 종교방송 관계관 회의를 열고 방송프로그램의 ‘종교실태파악, 종교방송 운영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모부는 참된 인생의 길을 제시하는 프로 ‘마음의 등불’을 금,토,일요일 시간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방송을 1일씩 순환하며 실시키로 했다. 한편 각 종교방송 관계관들은 “종교방송을 통해 통일에 대비한 갈등해소와 민간방송의

방송법 제정을 촉구하는 1백인 선언문’을 발표하고 “재벌과 신문사의 방송참여는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계를 극복하여 북한주민 및 민간사회복에 기여’키로 방송 방침을 정했다.

축구스타 ‘바조’ 초청

2002년 서울월드컵유치 ‘불’을 조성키위해 그동안 교계에서 꾸준히 검토해온 불자 축구스타 바조의 방한이 또다시 거론돼 화제다. 2002년 월드컵유치 후원회 회장 김홍국씨는 경비일체를 후원회에서 지원하고 공식적인 협조체결은 동산반야회에서 맡는다는 공식입장을 정리하여 동산반야회에 건의했다. 이에 대해 동산반야회는 바조를 초청하여 종단협의회 차원으로 조계사에서 ‘2002년 서울 월드컵유치 성공기원법회’를 열어 불자들의 화합은 물론 대 국민포교에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북 종교방송 편성

대북 불교방송이 12월 시험 방송을 거친뒤 내년 1월부터 첫 전파를 발사한다. 『본지 31호 참조』

통합 방송법안 폐기

대기업의 방송 참여규제를 일부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통합방송법안’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폐기될 예정이다. 방송법 개정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에 앞서 불교언론대책위원회(위원장 진관)와 방송개혁국민회의는 지난 5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적

내’는 우려도 낳고 있다. 또 두달여동안 5인 대표들이 새회장단 구성에 어떠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것이 후원회를 해체하여 다른 조직으로 체질변경시키려는 명분 축적의 과정이 아니겠느냐는 조심스러운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에 ‘새로 구성되는 후원회에서 더 열심히 포교의 장을 열어야 한다’는 회장단 사퇴의 변이 지금은 무색해질 정도로 존속여부까지 거론하는 5인대표들의 일련의 움직임은 의아스러움을 자아낸다. 사퇴한 회장단스님들은 3천5백여명의 불자들이 보여준 ‘무주상보시’의 거룩한 마음을 소중히 여겨 본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새회장단을 구성한 후 물러나는 것이 바른길이란게 불교방송과 관심있는 이들의 주문이다. 이런만큼 후원회는 해를 넘기전에 신임회장단을 구성하여 본래 목적인 불교방송 프로그램 후원의 보살도를 걸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프로그램후원회 ‘알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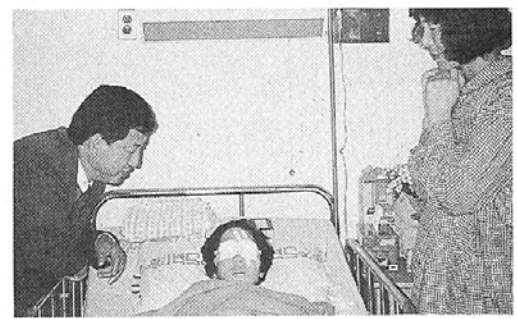
는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회원들은 후원회가 불교방송이 있으므로 해서 생긴 단체이므로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만물때의 취지가 순수했던 만큼 후원회의 목적을 변경하려는 것은 곤란하다는 여론속



김원우 (취재2부 기자)

불교방송 프로그램후원회(이하 후원회)가 지난 10월 15일 회장단 사퇴사 표명이후 2개월여동안 새로운 회장단 구성등 조직정비의 구체적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회장단 사퇴의 사 표명과 함께 구성된 5인대표 체제도 ‘20인 대책위 구성’ 등의 안을 내놓았으나 아직 후속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후원회는 5인 대표체제로 이끌어지고 있는 가운데 뒤늦은 진통까지 겪고 있다.

특히 후원회의 중심이 됐던 정목스님이 사퇴와 관련 ‘이해되지 않는 일로 계속 지지당하고 방해받아 왔으며 도저히 더 이상 일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사퇴를 결심했다’며 “후원회를 계속 결성할 것인 지 논의하겠다”고



◇ 물의 사고로 실명위기에 놓여있는 장현숙양은 수술비 1천만원이 없어 실의에 빠져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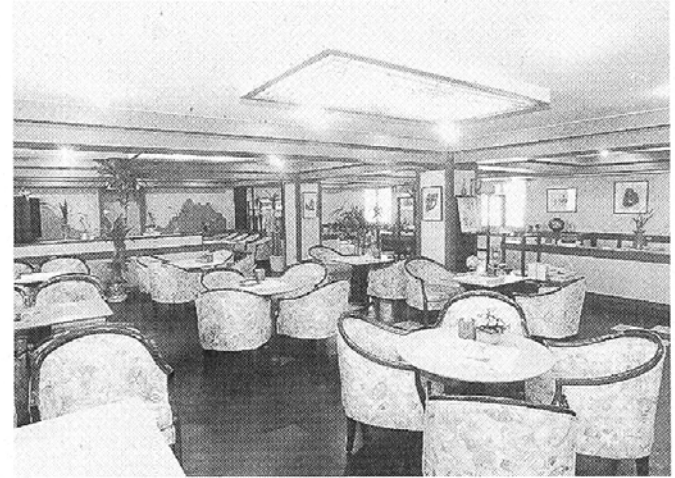
“실명위기 섬마을 형숙양에 광명을 되찾아 줘시다”

누군가는 세상에서 가장 가혹한 형벌이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경남 남해군 창신면 창신리에 살고 있는 장형숙 어린이(11세). 섬마을 어린이 형숙양이 불의의 사고로 눈을 크게 다친 것은 불과 2개월여전. 어디서 날아 왔는지도 모르는 홍물에 두 눈을 맞았으나 상처가 심해 실명 위기에 놓이게 됐다.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새생명 광명회 김기원 회장은 장양을 경상대 의대병원에 입원시키고

2차례의 수술을 주선했다. 그러나 앞으로 한 두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그나마 실명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아 든 장양의 부모는 넋을 놓고 있다. 어촌사정에 1천만원이나 하는 수술비를 감당할 방법도 없으리니와 실의에 빠진 장양을 바라보면 무너지는 가슴을 억누를 수 없기 때문이다. 보다못해 새생명 광명회가 장양에게 광명을 찾아주고자 여러 독자의 도움을 구하고

은 곳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온정이 필요한 때다. 새생명 광명회 (0591)751-3384 농협 803-01-344384 (김기원)

정성으로 올린 한잔의 차, 기쁨과 여유를 함께 마십니다



- ▶ **녹수 정산은** 엄선된 재료만을 사용합니다. 최고의 재료에서 최고의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 **녹수 정산은** 인스턴트 식품을 일체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성어린 손길에서 맛있는 차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 **녹수 정산은** 오직 정성으로 차를 다룹니다.

“고객 여러분께 깊은 여유와 만족을 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 소모임, 불자들의 신행모임, 도심 특별 법회, 강연회 등에 장소를 빌려드립니다.